

‘忍深成大’ 그 열매는 달다

국 민들 모두가 놀랐다. 그동안 쉬쉬해 왔고 우려했던 일들이 못물 터지듯 터져버렸다. 대한민국의 건장한남자라면누구나다녀오는군대에서다.

최전방 GP부대에서총기난사사고가발생했다.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한 사병이 동고동락했던 많은 전우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다. 한쪽에서는 졸병들의옷을벗기고즐거워하는고참병들의사진이인터넷에급속도로유포되고있다.

총기사고가발생한후첫주말은유달리군에간자식을 면회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사건으로밤잠을설친부모들이다. 업무상약속을취소한아버지, 집안일미뤄두고달려간어머니, 그리고누나등등.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래가지고어떻게자식을마음놓고군대에보낼수있느냐는것이다. 군생활부적응자등사병관리를보다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 문화 개선도필요하다는지적도여기저기서터져나온다.

일련의사태를지켜보면서 대한민국육군 예비역 병장으로서안타까운마음금할길없다.

오래전일이다. 밤새줄다걸다아침이되어정신을차려보면, 이제목적지의 5분의1이나왔을까. 땀과 이슬에 흠뻑젖은군복에서는 알 수 없는 노린내가솔솔풍긴다. 자대배치후 2 3개월에한번 꼴로 있는 행군에 지친 내 발에서는발톱이 또빠지려고움찔거리고있다. 앞으로걸어야할이름모를산과 들은그거리가얼마나될까? 나의이고생은언제나 끝날 것인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기만 했던 나날들... 제대 날까만 손꼽아 기다리던 나의군대생활의모습이다.

그러나돌아켜보면같이건고같이힘들어했던전우가있어서좋았던때였다. 그때끓여먹었던라면은또얼마나맛있었던가.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곳인가. 말 안 듣고 사고만치던아들녀석사람만들어서돌려보



손해영
삼영건설(주) 대표

내는 곳이다. 귀신잡는 곳이다. 안되면되게 하는창조의공간이다.

몇년전부친으로부터물려받은조그마한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술한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고비를 슬기롭게넘긴적이적지않았다. 여러요인이있었겠지만군생활때의한강인한정신력과인내심이지금내삶의큰 토양이되었던것같다.

우리인생에있어서군대생활2 3년은그리긴기간만은아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배운것들은평생간다고 생각한다. 忍深成大 라는 말이 있다. 참고도 참으면 반

드시성공할날이올것이고, 그성공은참는자에게커다란결실을 안겨줄것이라는말이다.

피할수없다면즐거이라고했다. 대한민국남자라면누구나한번 거쳐야하는관문이군대아닌가. 우리의동생, 아들, 조카들이기꺼이즐거운마음으로군생활을받아들였으면하는마음이다.

이번주말에는군복무중인조카녀석면회나가야겠다. 그녀석이좋아하는치킨과김밥을가득싸들고...

한가지제안하고싶은것이있다. 건설업계에종사하는많은분들도업체차원에서우리군을격려하는차원에서위문을해줬으면 하는바람이다. 군인들이나라를잘지켜줘야후방에서안심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아닌가. 

